

#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100일 간의 기록을 말하다!

2018. 05. 02 ~ 2018. 08. 09

접 수 번 호		
학 교 명		영훈국제중학교
동아리(팀)	명칭	DK03
	구성원	3학년 심재인, 최정화, 김준희, 김지우

## 목차

### 1. 참여 동기

### 2. DK03의 발자국

- (1) 독도를 알리는 카페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개설
  - 독도 기초 자료
  - 독도 관련 PPT 템플릿 및 배경 사진 무료배포
- (2) 독도를 담은 핀버튼 판매 활동
- (3) 독도 필통 만들기 키트 봉사활동
- (4) 광화문에서 독도 알리기
- (5) 독도 경비대에게 편지쓰기
- (6) 독도 명칭 표기 수정 요청 이메일 전송 및 서명운동
- (7) ‘당신은 독도에 대해 잘 아시나요?’ 강연 활동
  - 강연에 사용했던 PPT
  - 독도와 관련된 단어 찾기 활동
  - 강연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홍보 포스터
- (8) 독도를 더 자세히 알리는 팜플렛 제작 및 배부, 홍보
- (9)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강치 이모티콘 제작 및 등록
- (10) 독도의 역사를 담은 단편 웹툰 제작

### 3. 활동 결과와 느낀 점

## 1. 참여 동기

예전부터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는 독도와 관련된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릴 때부터 독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항상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말을 해왔지만 정작 독도에 대해 알고, 기억나는 사실 또한 많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현되고, 동해가 일본해라고 표현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기사를 읽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아온다면,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형 방송국 중 하나인 JTBC가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 많은 누리꾼들이 당혹함과 실망감을 내비추었으며, 우리들도 그 중 하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의를 나누었지만,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끼리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그러던 와중 학교에서 ‘독도 지킴이 대회’가 개최되었다. 현재 팀원들 모두 독도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리자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끼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독도를 알리자는 취지를 가지고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 2. DK03의 발자국

### (1) 독도를 알리는 카페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개설

먼저 우리는 독도에 대한 기본 정보와 독도를 사이에 둔 한일의 영토 분쟁, 그리고 각국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료, DK03 팀이 해 온 활동을 업로드할 카페를 개설했다. 카페의 이름은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독도와 함께 걷다’, ‘YHIMS DK03’, ‘독도와 거니는 우리’, ‘영혼 독도지킴이’, ‘우리의 독도’, ‘혜음 of 독도(혜음: ‘생각하다’라는 뜻의 순우리말)’ 등의 의견이 팀원 내에서 나왔으나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투표수를 차지한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로 결정되었다. 팀원들끼리는 이를 줄여 ‘울동뱃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카페의 주소는 [cafe.naver.com/yhdk03/2](http://cafe.naver.com/yhdk03/2) 이고, URL에는 팀명인 DK03을 담았다. 카페는 김준희 학생이 개설했고, 현재 4명의 팀원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음은 심재인 학생, 김준희 학생, 최정화 학생이 카페에 업로드한 독도 관련 기초 자료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파워포인트 템플릿 및 휴대폰 배경 사진이다. 독도 관련 기초 자료는 심재인 학생이 조사 및 정리하였으며 파워포인트 템플릿은 김준희와 최정화 학생이 제작했고, 배경 화면은 김준희 학생이 단독으로 제작했다.

#### ① 독도 기초 자료

다음은 심재인 학생이 카페에 기재한 독도 관련 기초 정보의 전문이다.

### I. 독도란?

#### ① 위치와 면적

## 1) 우편번호: 799-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 2) 지리적 위치



동도

-북위 : 37° 14' 26.8"

-동경 : 131° 52' 10.4"

서도

-북위 : 37° 14' 30.6"

-동경 : 131° 51' 54.6"

- 행정 구역상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 >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동해안의 죽변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16.8km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 북서쪽으로 157.5km

## 3) 크기와 구성



독도의 구성: 2개의 큰 섬(동도, 서도) + 89개의 부속 도서

동도→서도 = 저소시를 기준으로 151m

- 동도: 동남쪽에 위치  
면적 73,297m<sup>2</sup>, 높이 98.6m, 둘레 2.8km  
접안시설, 경비대, 헬기장, 유인등대 등 존재
- 서도: 서북쪽에 위치  
면적 88,740m<sup>2</sup>, 높이 168.5m, 둘레 2.6km  
가장 높은 지형과 넓은 면적을 지님

주민숙소, 등반로, 음용시설 등의 시설이 존재

- 부속도서: 89개의 부속도서, 총 면적 25,517m<sup>2</sup>  
대표적인 도서: 부채바위, 쫓대바위, 군함바위, 넓덕바위, 해녀바위 등  
→ 총 면적은 187,554m<sup>2</sup>에 달하며 동도 73,297m<sup>2</sup>, 서도 88,740m<sup>2</sup>, 부속도서 25,517m<sup>2</sup>

## 4) 도로명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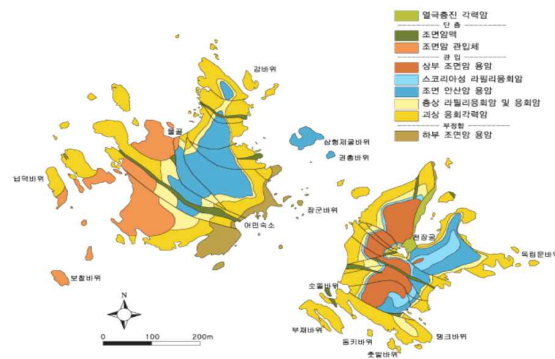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 (주민숙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독도등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

## ②자연환경

### 1) 기후

기온	최저온도 13.6℃, 최고온도 34.6℃, 평균기온 12.2℃
강수량	평균 1,240mm(강수량 가장 많은 달 9월)
바람	연평균 풍속이 4.3m/s로 남서풍이 우세한 반면 겨울에는 북동풍이 우세
표면 수온	3~4월에 10℃ 전후로 가장 낮고, 8월에 25℃ 전후로 가장 높은편
표면수 염분 농도	33~34% 표층 산소량은 6.0ml/l, 투명도는 17~20m(높은 염분 농도, 맑은 수역 형성)
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로시오 해류의 한 지류인 쓰시마 해류가 대한 해협을 지나 북상</li> <li>- 겨울철에는 독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선회</li> <li>- 여름철에는 쓰시마 해류가 독도보다 더 북상하여 선회</li> <li>- 북쪽에서는 리만 한류의 한 지맥인 북한 해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 독도 부근에 많은 해양식물 형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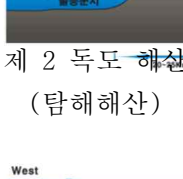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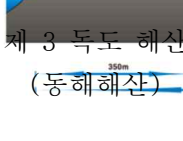
## 2)지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인 각력암, 조면암 등 총 9개 화산암층</li> </ul>
동도의 정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발고도 98.6m, 정상부근은 비교적 평탄</li> <li>- 두께20~30m의 토양층이 분포하여 초본류가 서식</li> <li>- 바다를 향한 사면은 대부분 높이 30m 내외의 경사가 급해 해식으로 이루어져 토양</li> <li>- 층이 겹쳐지거나 얇아 식생피복이 대단히 불량</li> </ul>
서도의 정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발고도 168.5m, 좁고 날카로운 능선</li> <li>- 남서쪽 해발고도 100~140m 사이는 다소 평탄한 편이며 초본들이 분포</li> </ul>

## 3) 해저 지형

제 1 독도 해산 (독도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위 37° 15', 동경 131° 52'</li> <li>- 제1독도 해산 위에 독도 위치</li> <li>- 서쪽으로는 수심 2,100m로 경계 지어지고, 동쪽으로는 제2독도해산 서쪽과 수심</li> <li>- 800m의 해저골을 두고 분리</li> <li>- 정상부는 수심 60m에서 200m정도이며, 경사도가 2° 미만 매우 완만하고 평탄한 파식</li> </ul>
---------------------	---

	<p>대퇴를 형성</p> <p>많은 해저곡 형성 이 해저곡들은 심해의 울릉분지로 연결</p>
<p>제 2 독도 해산 (탐해해산)</p> 	<p>북위 37° 9', 동경 132° 2'</p> <p>제1독도해산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p> <p>동쪽은 수심 약 800m에서 경계지어짐</p> <p>주변 사면의 경사도 약 13도, 정상부의 경사도는 약 2도, 수면 위로 노출 부분 없음</p>
<p>제 3 독도 해산 (동해해산)</p> 	<p>북위 37° 11', 동경 132° 20'</p> <p>제1독도해산으로부터 55km 떨어진 오키뱅크 서쪽 경계부에 위치</p> <p>화산체의 상부대지가 가장 넓은 반면 해산 기저부로부터의 높이는 약 600m로 가장 낮음</p>

### ③ 생태계

#### 해국



#### 1) 식물

- 총 59종류가 독도에 자생 (총 1문 3강 21목 29과 50속 48종 1아종 9변종 1품종)
- 식물상 목록은 자생종, 귀화종, 재배종 및 식재종으로 분류됨
- 주요 식물군락은 돌피군락, 돌피-왕해국군락, 돌피-섬제비쑥군락, 왕해국-섬제비쑥군락, 명아주군락, 유채-소리쟁이군락의 총 6개 군락
- 목본은 사철나무, 섬피불나무와 큰보리장나무가 자생, 이 중에서 왕호장근, 참나리, 갯까치수영 등 3종은 환경부가 지정한 특정식물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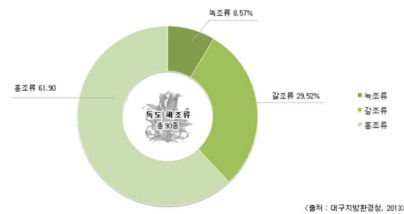
#### 2) 곤충

- 미동정 30종 제외한 총 134종이 독도에서 확인됨 (2013년 현재)

- 분류군별로 딱정벌레목, 파리목, 나비목, 벌목, 노린재목, 매미목, 툴도기목, 잠자리목, 메뚜기목, 집게벌레목, 풀잠자리목으로 나타남
- 화산섬인 독도의 식물 분포가 제한적이고 열악한 서식환경 때문에 독도의 곤충상은 매우 특이함
- 독도장님노린재는 독도가 세계 분포상 북방한계선으로, 초록다홍알락매미충은 동방한계선, 섬땅방아벌레는 서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어 독도는 많은 곤충의 '생물지리학적 한계선'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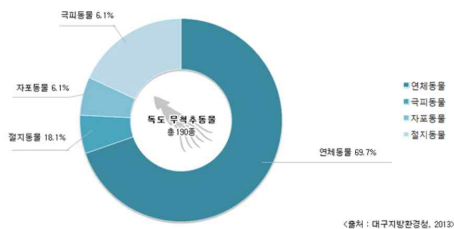
### 3) 조류

- 독도에서 확인된 조류는 총 175종 (2013년 현재)
- 갯이갈매기, 바다제비, 습새의 대집단 번식지이며,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천연의 생물상을 유지하고 있음
- 매나 벌매와 같은 멸종위기 종에서부터 수많은 도요새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참새들까지 매우 다양한 조류 서식
- 북쪽과 남쪽을 오가는 철새들의 이동경로 상에 있어 다른 설 곳이 없는 철새들의 구원섬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국, 시베리아, 알래스카, 북미,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등 철새들이 이용하는 이동경로에 포함되는 태평양, 환동해안에 독도가 위치하여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짐



### 4) 해조류

- 독도 연안에서 출현한 해조류는 총 95종임 (2006~2010년 수중잠수조사)
- 독도 연안에 출현하는 해조류는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로 구분되며 주요 해조류로는 미역, 다시마, 김, 우뚝가사리, 톳 등이 있음.
- 최근 종수가 급격히 감소 (울릉도와 함께 해수온의 상승과 남쪽의 열대성 해류의 북상이나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측)



### 5) 무척추동물

- 독도 연안에 출현한 무척추동물은 총 190종임 (2006년~2010년 수중잠수조사)
- 주요 무척추동물로는 전복, 소라, 홍합, 해삼, 새우, 홍게, 거북손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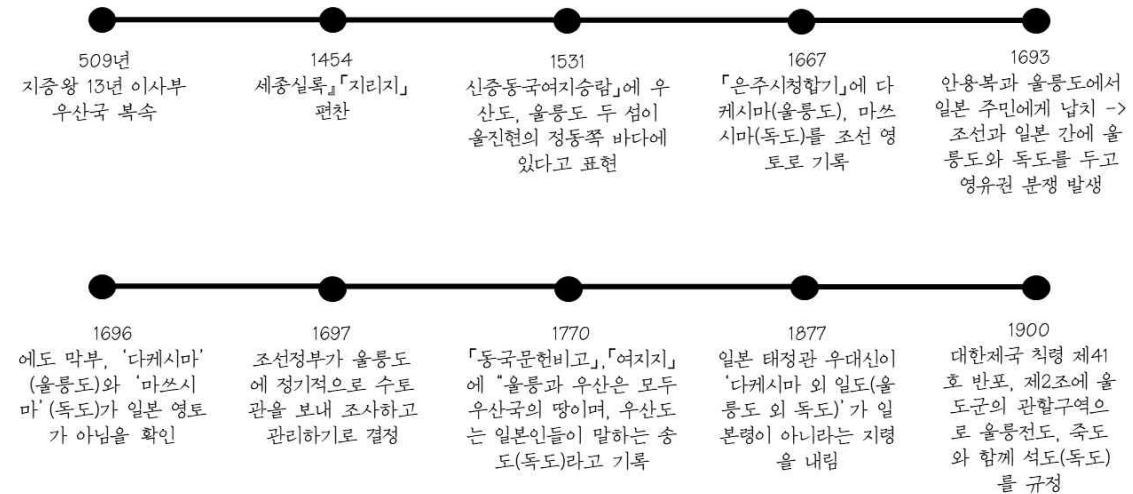
### 6) 어류

- 독도 주변해역에서 총 95종 발견 (2006~2010년 수중잠수조사)
- 주요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음
- 동해안 연안 출현 어종과 제주해역에 서식하는 아열대성 어종, 독도해역을 회유하고 있는 냉수성 어종이 공존하며 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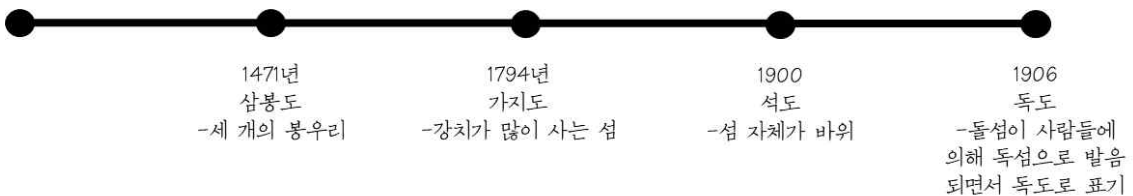


## II. 독도의 역사

### ① 타임라인



### ② 이름의 변천



(타임라인: 심재인 학생이 직접 자료 조사 후 제작)

- 일본에서는 명치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다가, 1905년 영토편입 이후부터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름
- 서양에서는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이름을 붙임
- :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으로 명명함
- : 1885년 영국함선 호네트호 또한 '호네트 암(Hornet Rock)'으로 명명함



### ㉑ 역사적 인물

#### 1) 안용복(1658 ~ ??)

-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에도 막부로 하여금 일본인의 울릉도 침입 및 월경을 금지시키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아냄
- 그 이전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 소지가 있었으나 안용복의 공으로 인해 한참 뒤 고종 임금 때까지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음
- 그 뒤 일본 어선들이 함부로 울릉도에 상륙하지 못하게 되었음

#### 2) 이사부(?? ~ ??, 신라 지증왕 시절)

- 512년 우산국을 정벌
- : 이때 사자(현재의 사자가 아닌 전설의 동물)를 나무로 제작해 적에게 항복 요구

#### 3) 홍순철(1929년 1월 23일 ~ 1986년 2월 7일)

- 울릉군 상이 전역자를 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 국립경찰과 공조하여 독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경비 활동을 함
- 독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행사하는 데에 기여
- 독도에 나무 옮겨심기, 대형 태극기 설치, 급수장 설비 등 독도 지키기 및 가꾸기 활동을 함

## IV.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 ①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한국 vs 일본)

#### 1) 512년 -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함

#### 2)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

##### 2-1)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음
-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지도,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이 이를 확인

##### 2-2) 주장의 허구성

-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의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
-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 (1876년)와 같은 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함

#### 3)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 3-1) 일본의 주장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음
-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

##### 3-2) 주장의 허구성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보는 것이 가능,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 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음



## 6) 1905년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서

### 6-1) 일본의 주장

- 다케시마는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 것 1903년은 우리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로, 다케시마는 시마네 현의 땅으로 편입됨
- > 시마네 현에서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야기됨 의문이 해소되어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

### 6-2) 주장의 허구성

-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함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했으며 1905년 당시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임
- 한국은 일본의 조치 사실을 안 즉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나(1906년), 을사늑약(1905년 11월)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단지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뿐
-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고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함
- 울릉도 주변도서의 지리적 현황과 독도를 독섬(돌섬)이라고 호칭한 울릉주민들의 생활상을 고려하면 “석도”는 독도를 의미하는 것이 맞음
- 1947년 울릉도 개척민(홍재현)의 증언 및 1948년 독도폭격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울릉도 주민들의 어로작업지로 이용됨

## 7)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 7-1) 일본의 주장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함
-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서도 명백히 명시됨

### 7-2) 주장의 허구성

- 미국은 애초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함
- 미국의 일시적인 태도의 변화는 일본인들의 로비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
-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함
- SCAPIN 제677호 : 3. 이 훈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㉔ 울릉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 ... 등이다.

\*SCAPIN이란? 연합국군 최고사령부(GHQ)의 지시령

- 독도는 일본의 본격적인 영토침탈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임

## 8) 전후 연합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 8-1) 일본의 주장

-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함
- 미일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독도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에 이를 고시함

### 8-2) 주장의 허구성

- 미 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하였으며, 그 사실을 한국측에 공식적으로 통고해 옴
- 독도를 향한 폭격은 모두 일본의 유도에 의하여 일어난 일
- 야마모토 의원 : “이번 일본의 주둔군 연습지 지정에 있어서, 독도 주변이 연습지로 지정되면 그 (독도) 영토권을 일본의 것으로 확인받기 쉽다는 생각에서 외무성이 연습지 지정을 바라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시하라 차관 : “대체로 그런 발상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9)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 9-1) 일본의 주장

-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음

### 9-2) 주장의 허구성

- 1545년 세종실록지리지, 1808년 만기요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이상 한국 정부문서), 1696년 에도막부의 도해금지령 공문, 메이지정부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태정관 지령문(이상 일본 정부문서), 1946년 SCAPIN 제677호, 제1033호(연합국총사령부 공식문서) 등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10)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의와 관련하여

### 10-1) 일본의 주장

-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 측이 이를 거부함

### 10-2) 주장의 허구성

-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되었다가 되찾은 역사의 땅임
-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
- 오로지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근거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

## 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장장 10쪽에 달하는 이 장문의 글은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카페에 세 게시물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janes1627(jane\*\*\*\*) 11 http://cafe.naver.com/yhdk03/4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DK03팀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기본 정보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3파트로 나뉘어서 독도의 지리적 정보, 독도의 역사, 그리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한국VS일본)에 대해 순차적으로 게시물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음슴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독도란?


1. 위치와 면적  
1) 우편번호: 799-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2) 지리적 위치

#### △ 독도의 지리적 정보 및 생태계에 관한 게시물

janes1627(jane\*\*\*\*) 11 http://cafe.naver.com/yhdk03/5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DK03팀 입니다  
오늘은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D  
이번 내용은 평소보다 약간 짧습니다 양해부탁드리고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1. 타임라인



509년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복속

1454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153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고 표현

1667 「은주시찰합기」에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

1693 안용복과 울릉도에서 일본 주민에게 남지 -> 조선과 일본 간에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 발생

1696 에도 막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

1697 조선정부가 울릉도에 정기적으로 수포관을 보내 조사하고 관리하기로 결정

1770 「동국문헌비고」 「여지지」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독도)라고 기록

1877 일본 태정관 우대신이 「다케시마 외 제도(울릉도 외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는 지명을 내릴

1900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제2조에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곡도와 함께 서도(독도)를 규정

#### △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게시물

안녕하세요

DK03입니다

독도의 기본 정보 마지막 시리즈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관한 게시물을 써보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본은 계속 독도가 자기들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한국 vs 일본)

**1) 512년 -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함**

**2)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

2-1)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음

-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지도,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 (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이 이를 확인

2-2) 주장의 허구성

-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의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도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

-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 (1876년)와 같은 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함

**3)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3-1) 일본의 주장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음

-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

3-2) 주장의 허구성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를 반박하는 글과 현 정부의 입장에 관한 게시물

## ② 독도 관련 PPT 템플릿 및 배경 사진 무료배포

김준희 학생과 최정화 학생이 모두가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독도를 담은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제작하여 카페에 기재하였다. 다음은 템플릿의 모든 슬라이드를 캡처한 사진과 실제로 카페에 기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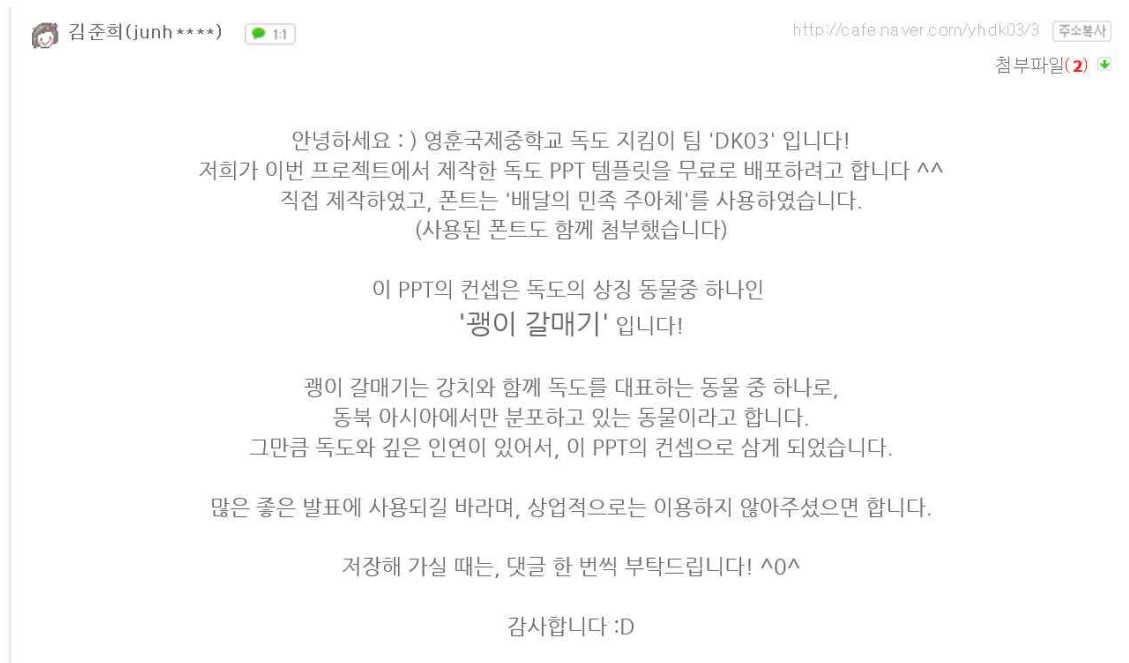
<독도야 사랑해 PPT> : 김준희 학생 제작. 사용한 폰트는 배달의민족 주아체



△ PPT 템플릿



△ PPT 템플릿을 카페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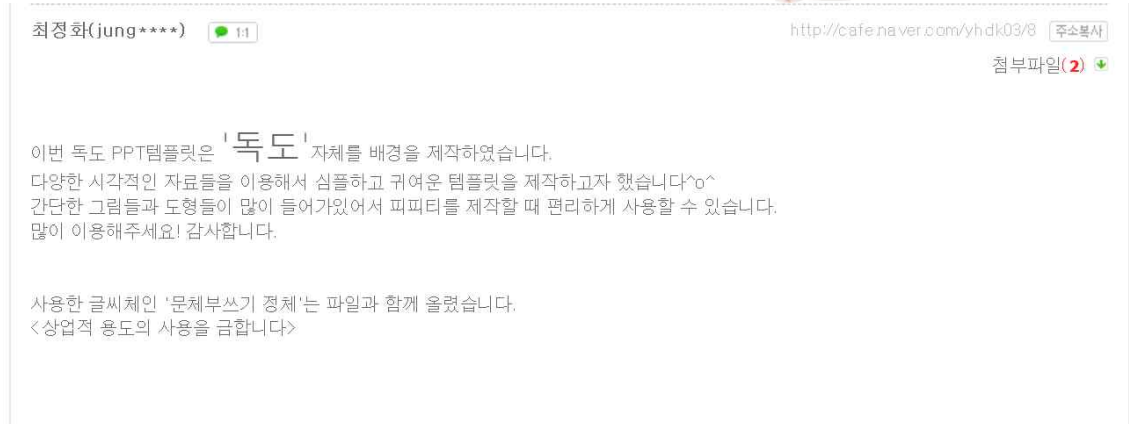


<독도 PPT> : 최정화 학생 제작. 사용한 폰트는 문체부 정체



#### 목차

1. 독도에 대하여
  - 독도의 역사
  - 우산도
2.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인 증거
  - 역사적 증거
  - 사료적 증거
3. 일본의 주장
4. 느낀점



을 카페에 게시

<독도 관련 배경화면> : 김준희 학생 제작.



△ 독도 배경화면 배포에 관한 게시물



김준희(junh\*\*\*\*)

1:1

http://cafe.naver.com/yhdk03/7 주소복사

첨부파일(3) ↓

안녕하세요! 영훈국제중학교 독도 사랑 팀 'DK03'입니다 :)  
이번에 저희가 직접 제작하게 된 배경화면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PPT처럼, 이 배경화면은 팽이 갈매기가 주제입니다.  
또한, 독도의 로고를 사용한 배경화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독도 #독도사랑 #Dokdo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인 독도에는 다양한 동·식물들과 경제 자원들이 있다. 누가 독도에 대해 묻는다면 가장 자랑스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독도에 사는 희귀한 동물들이다. 현재 독도에 살고 있지 않지만, 아픈 역사를 지닌 강치가 있다. 강치는 귀여운 겉모습의 물개과 동물로 독도를 오래전부터 대표해왔으나, 오래 전부터 계속된 일본의 강치 포획으로 인해 쉽게 멸종된 안타까운 동물이다. 이러한 강치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이번 PPT와 배경화면의 주제인 ‘팽이 갈매기’도 있다. 팽이 갈매기는 독도와 그 외의 몇 지역에만 거주하는 희귀한 갈매기이다. 이 팽이갈매기는 강치를 이어 독도를 대표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푸른색 바탕의 배경은 맑은 하늘을 뜻하고, 가장 도드라지게 사용되는 아이콘은 팽이갈매기이다.

사람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독도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바라는 마음에 이런 배경화면과 PPT템플릿을 만들게 되었다. 사람들이 수시로 들여다보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폰의 배경화면은 독도를 알리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또한, 발표에 사용되는 PPT 템플릿은 발표자도 제작하면서 계속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발표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무의식중에 기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독도를 사랑하자! 독도는 우리 땅!  
http://cafe.naver.com/yhdk03

전체글보기 | 베스트게시글

검색

**카페정보** 나의활동

닉네임 김준희  
since 2018.04.15. [카페소개](#)

씨앗 1단계 4

★ 즐겨찾는 멤버 2명

☑ 게시판 구독수 0회

☑ 우리카페앱 수 0회

초대 채팅하기

독도를 사랑하는 '네 명의 학생'이 개설한 독도 사랑 카페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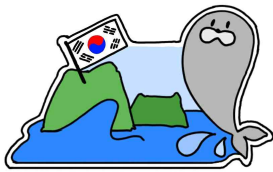
- 울릉뱃독 카페가 하는 활동 -

- < 독도 뱃지 제작 >
- < 내·외국인 상대로 독도 홍보 및 인식도 설문조사 >
- < 지도에서 잘못 표기된 독도/동해 정정 >
- < 독도를 모티브로 한 휴대폰 배경화면 및 PPT 템플릿 제작/배포 >
- < 독도 관련 봉사 활동 진행 >
- < 독도 카페 개설 후 활동 게시 >
- < 독도 관련 기본적인 자료 및 이슈 게시 >

△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 카페

(2) 독도를 담은 핀버튼 판매 활동

우리 팀이 계획하고 실천한 활동 중 가장 먼저 구체화되었으며 가장 먼저 실천으로 옮겨졌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던 활동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독도를 홍보하고 알리는 내용의 배지를 제작하여 영훈국제중학교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독도 관련 협회나 봉사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에서 기부 목적으로 판매하는 금속 배지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처음에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금속 니켈도금 배지를 판매하기 위해 김지우 학생이 태블릿의 메디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도안을 제작했다.



△ 초기의 금속 배지 도안

하지만 금속 배지를 제작 및 판매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음을 곧 실제로 느꼈다. 먼저 우리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작 업체를 찾기 어려웠다. 금속 배지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100개 이상의 대량 주문만 받았으며, 실제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본 결과 제작비가 약 26만원이나 들었다. 학생이 선불리 낼 수 없는 가격에 경악하였지만 이보다 더 저렴하게, 더 소량으로 금속 배지를 주문제작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두 번째는 배송 기간이었다. 도안에 맞게 금속 틀부터 제작해야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배송이 열흘 이상 걸렸다. 우리가 별다른 문제없이 원활하게 배지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는 학교였는데, 대부분의 배지 주문제작 업체에서는 다음 주 주말이 되어서야 배지가 도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높은 만족도와 소량 주문이 가능함을 자랑하던 한 소규모 업체는 제작 기간이 독도지킴이대회의 활동 기간을 훨씬 초과한 기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지 제작 업체의 전화 상담이 오후 6시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시간에 학교를 마치는 우리는 업체와의 자세한 상담이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불편함이 있었어도 학생들의 수요도와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면 우리는 시간의 빠듯함과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금속 배지를 제작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배지를 사겠다는 학생들은 10명 내외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가격이 너무 높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설상가상으로 주문제작 업체와 도안을 놓고 상의하던 와중 도안에 있는 태극기의 섬세함을 금속 배지로는 어떻게든 나타낼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우리는 결국 금속 배지 제작을 포기했다. 하지만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디자인한 물건을 판매하여 이익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기로 했다. 우리 팀이 찾은 방안은 금속 배지 대신 핀버튼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그란 원형 플라스틱 장식에 각종 무늬나 디자인을 인쇄하는 식으로 만드는 핀버튼은 여러 면에서 금속 배지의 단점을 보완했다. 만드는 가격도 하나에 790원으로 상당히 저렴했으며 소량 주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작 및 배송까지 2~3일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인쇄 형식이기 때문에 금속 배지보다 디자인할 수 있는 폭이 넓었다. 결과적으로 핀버튼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금속 배지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한 선택이었다.

우리는 두 가지 도안을 제작하여 32mm와 44mm의 두 가지 크기로 판매하기로 했다. 총 네 가지의 핀버튼을 주문하였으며, 가격 선정은 소형(32mm)은 개당 1,000원, 중형(44mm)은 개당 1,200원으로 달리했다. 금속 배지 도안을 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태블릿에 메디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한 도안은 아래와 같다.



도안 1 (한국의 아름다움, 독도) 소형 15개 / 중형 15개, 도안 2 (오 마이 독도!) 소형 15개 / 중형 15개로 제작하여 총 60개를 주문하였고, 주문 비용은  $60 \times 790 + 3,000 = 50,400$ 원이었다.

주문 후 업체로부터 샘플 사진을 전송받자 우리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독도 핀버튼 배지 홍보글을 올렸고, 팀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3학년 4반과 5반 반톡에도 동일한 글을 보냈다. 곧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 속속 주문 문의가 왔다. 저렴한 가격과 깔끔한 디자인 때문인지 금속 배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주문을 받았다. 도안 1 소형은 글을 업로드한 지 1시간 만에 매진되어 10개 더 추가 주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팀원 전원이 상대적으로 재고가 많이 남았던 도안 1과 2 중형을 각각 구입했고, 졸업한 선배들이 구입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금액을 지불하고 스승의 날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하였다.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볼 기회가 적은 1, 2학년 학생들은 결국 기간 내에 주문한 배지를 못 찾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최대한 빨리 계산 및 기부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부금을 내고 그 후에 비용을 돌려받는 것으로

#### ♥ 독도 핀버튼 판매 ♥

30407 심재인, 30414 최정화, 30504 김준희, 30505 김지우가 독도지킴이대회 활동으로 진행하는 주문제작 독도 핀버튼 판매입니다! 😊

❌ 배송비 등의 이유로 인해 영훈국제중 재학생들에게 1차로 판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핀버튼 🖱️ 가방이나 필통, 옷 등에 장식할 수 있는 배지와 유사한 액세서리입니다. 뒷면은 옷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용 더 궁금하면 네이버에 검색하기!

#### ♥ 판매 내용

도안 1 (한국의 아름다움, 독도)  
- 소 (지름 32mm 🖱️ 어느 정도인지는 두번째 사진 참고) 1개당 1,000원  
- 중 (지름 44mm 🖱️ 어느 정도인지는 두번째 사진 참고) 1개당 1,200원

도안 2 (오 마이 독도)  
- 소 (지름 32mm 🖱️ 어느 정도인지는 두번째 사진 참고) 1개당 1,000원  
- 중 (지름 44mm 🖱️ 어느 정도인지는 두번째 사진 참고) 1개당 1,200원

♥ 총 재고 수 : 60개 (각 15개씩)  
♥ 제작비를 제외한 수익은 모두 독도 보호 단체에 기부됩니다

결정했다.

♥ 핀버튼 🖱️ 가방이나 필통, 옷 등에 장식할 수 있는 배지와 유사한 액세서리입니다. 뒷면은 옷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용 더 궁금하면 네이버에 검색하기!

#### ♥ 판매 내용

도안 1 (한국의 아름다움, 독도)  
- 소 (지름 32mm 🖱️ 어느 정도인지는 두번째 사진 참고) 1개당 1,000원  
- 중 (지름 44mm 🖱️ 어느 정도인지는 두번째 사진 참고) 1개당 1,200원

도안 2 (오 마이 독도)  
- 소 (지름 32mm 🖱️ 어느 정도인지는 두번째 사진 참고) 1개당 1,000원  
- 중 (지름 44mm 🖱️ 어느 정도인지는 두번째 사진 참고) 1개당 1,200원

♥ 총 재고 수 : 60개 (각 15개씩)  
♥ 제작비를 제외한 수익은 모두 독도 보호 단체에 기부됩니다  
♥ 월요일까지 주문받고 화요일에 학교에서 나눠드려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학년/원하는 도안, 사이즈, 개수) 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Ex) 김지우 / 30505 / 도안1 소 2개  
최정화 / 30414 / 오마이독도 중 1개

😊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

일주일 동안 속속 진행되었던 핀버튼 판매 결과는 도안 1 소형 25개, 중형 15개, 도안 2 소/중형 각 15개씩 총 70개의 완판이었다. 벌어들인 금액은 총 89100원이었고 제작비인 60500원을 제외한 순수 수익은 28600원이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손수 만든 도안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뿌듯했다. 수익에 액수를 만원 단위로 맞추어 총 30,000원을 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에 기부하였다. 직접 은행에서 입금하고 싶었지만 주말이어서 은행이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손을 빌려 전자이체를 하였다.

### (3) 독도 필통 만들기 키트 봉사활동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도보로 7~8분)에 위치한 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 (KECPI)에서 독도사랑필통만들기 봉사를 진행했다. 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은 주로 라오스로 해외봉사를 나가고, 가난한 지역에서 독도필통과 식품을 나눠주며 학교에 페인트를 다시 칠해 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해외의 아이들이 독도가 무엇이고,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가 적혀 있는 필통을 들고 다님으로써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봉사활동인 것이다. 팀의 봉사내용은 단체에서 매년 해외봉사에 갈 때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필통 만들기 키트를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을 원활히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자석 분류하기, 비닐봉지에 재료들 넣기, 필통 뼈대 분리하기 등의 단순작업들이기에 처음에는 다소 지루함을 느꼈다. 하지만 해외봉사를 갔을 때 찍은 현지 아이들이 필통을 들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통해 뿌듯함을 느낀 것은 물론이고, 열심히 봉사에 임해야 다.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키트를 완성함으로써 300여 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서 먼 타들며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활동 중 사진이다.

오후 3:34 77%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받는분	☆ 대한민국 독도사랑 기업/0234522626
이체금액	30,000원
수수료	0원 베스트(TOPS CLUB)
받는통장메모	영훈3DK03
내통장메모	대한민국 독도

겠다는 동기부여까지 받게 되었다. 긴 봉사시간 동안 300여 명의 아이들에게 필통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래는





2018년 8월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팀 전체가 3시간 동안 봉사를 진행한 이 봉사에서는 주로 틀대와 자석, 양면 스티커와 같은 기본 뼈대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묶었다. 이 묶음은 미니 키트로써 ‘독도 사랑 필통 만들기’ 키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미니 키트를 350여개를 만든 후에 자석끼리 붙이는 간단한 봉사를 진행했다. 다음 날인 2018년 8월 9일에도 봉사에 참여해서 전날 만든 자석들을 이용해서 미니 키트를 다시 만들었고, 이 날은 총 300여개의 키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 후에는 ‘독도 사랑 크로스백’을 박스 단위로 정리하고, 분류하면서 봉사를 진행했다. 김준희, 심재인, 최정화 학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봉사를 진행했으며, 김지우 학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시간 동안 봉사를 진행했다.



8월 8일 진행한 봉사 활동  
(좌: 자석 붙이기 / 우: 미니 키트 만들기)



8월 8일 진행한 봉사 활동  
(우: ‘독도사랑필통’ 들고 촬영)



8월 9일 진행한 봉사 활동  
(미니 키트 제작 활동)



8월 9일 진행한 봉사 활동  
(미니 키트 제작 활동)

#### (4) 광화문에서 독도 알리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이다. 광화문은 접근성이 좋은 종로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광화문 주위에는 경복궁,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 등 역사가 흘러 온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많고, 주요한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이곳을 관광하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또한 광화문 부근에서 눈에 띄는 광화문 광장에는 수시로 많은 시위가 열리기도 하며 현재 세월호 관련 천막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광화문과 그 주위 지역은 항상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경복궁은 우리나라 궁의 아름다움과 한복을 입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한 사람들과 견학 온 학생들, 관광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의 발길로 끊이지 않고, 그 주위의 돌담길은 조선 시대 전통적인 느낌을 내기에 충분하다.

독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독도를 외국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우리가 진행했던 다른 활동을 보면, 많은 외국 지도에서 아직 독도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이며 일본에서 무단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은 알고, 독도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들 가지고 있다. 독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외국인에게 독도에 대해 알리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가 마주한 외국인들이 각자 그 나라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여러 국가들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식하지 않고 진정한 대한민국 영토로 인식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독도 자체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고, 다른 활동은 외국 지도 중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경우나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경우에 대한 수정 요청의 이메일을 보낼 때 참고 자료로 함께 첨부할 많은 사람들의 서명이었다. 또한, 독도를 지키기 위해 근무하는 독도 경비대원 분들에게 전달될 짧은 메시지를 함께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의 출신에 대해 설명하고, 하는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서명을 받고 경비대 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받았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어로 설명한 후, 독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한 후 서명을 받았다. 타국의 생소한 섬을 지키는 경비대원 분들에게 메시지까지 써 달라고 부탁하면 난처하실 것 같아 메시지는 받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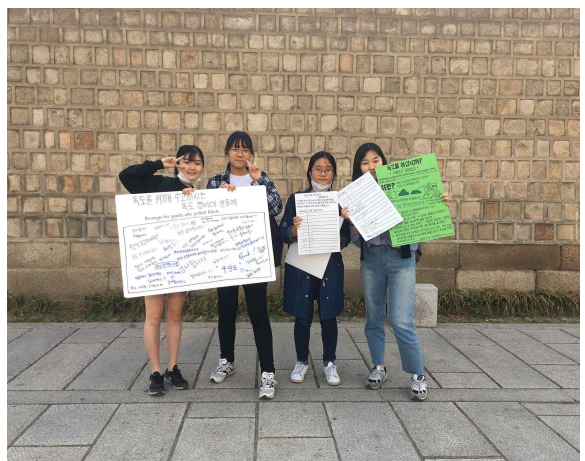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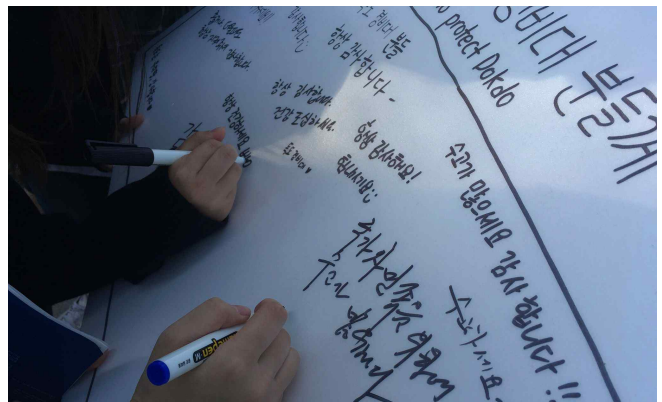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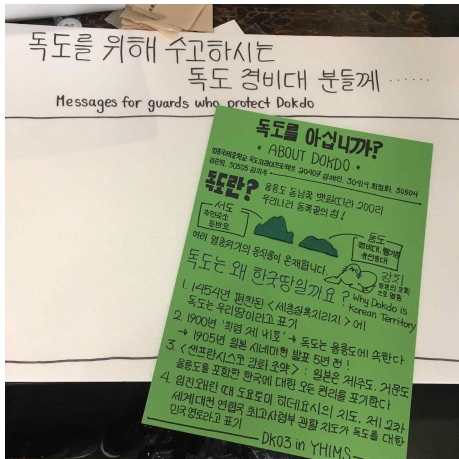
활동하면서 있었던 크고 작은 해프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청소년 지도사 분들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었다. 우리가 말을 건 후, 그 분들에게서 청소년 지도사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주시며 굉장히 놀랐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힘찬 응원을 받았고 사진까지 함께 찍게 되었다. 덕분에 약간 지쳐있던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었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 분위기가 한껏 좋아졌다. 그 반대로 말을 걸자마자 거절당하거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어서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었던 적도 있다.

또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활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도 많았다. 이런 경우는 정말 힘이 많이 되었다. 이런 설문조사 같은 활동을 하다보면 사람들에게 거절 받는 것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곤 하는데, 먼저 와서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힘이 나곤 한다.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나중에 더 기억에 남기도 한다. 몇몇 분들은 우리보다 독도에 대해 더 잘 아셔서 우리의 활동에 조언을 남겨주시기도 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 소개 한 후에는 우리에게 응원을 건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많은 분들의 작은 응원에도 쉽게 힘이 났다.



이번 활동에서 아쉬움이 남은 점을 몇 가지 정리하자면, 우선 교복을 입지 않았던 점이 가장 아쉽다. 아무래도 광화문은 정치적 색깔이 굉장히 짙은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을 걸면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은 내가 당사자였어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출신과 활동 목적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방법이 교복이어서, 교복을 입고 이 활동을 진행했다면 사람들이 더 호의적인 태도로 이 활동에 참여해 주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래는 활동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들이다.





더우나 추우나 항상 그 자리에서 독도를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편지를 각자 한 장씩 쓰고, 광화문에서 시민들로부터 우드락에 응원 메시지를 받아 함께 부쳐 드렸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대한민국 동쪽 끝에서 근무하시는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고 뿌듯했다. 아래는 우리가 쓴 편지와 우드락에 받은 응원 메시지이다.


[illegible]

To 독점이니바분들께

안녕하세요 영혼재림들이 재학중인 3학년 1반입니다. 우리반 영혼들 중등 영혼지킴이해서 갑니다.  
우리가 독도를 방문할 때, 독도 영혼바분들을 만났다가 광장이 워낙 넓고 깊습니다. 우리나에서 경호한 임무를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수습지킴이라 못해 정말 좌절합니다. 하지만, 항상 재림바분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지킴이라서 작심 이야기 못합니다. 죽도외에 병행하고 독도를 지킴이, 대안반 부유(12)가 바분들 편만  
아음이 당고 있습니다. 주는 바분들, 대안 바분들 영혼1반(영혼)에서 갑니다. 바분들이 바분들 지킴이  
있는 날이 진짜야 꼭 외로 바분들입니다!

From 영혼재림중3학년 1반친구  
2018.04.23.

Design by DESINGROOM made in Korea



독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 .....  
Messages for guards who protect Dokdo

[illegible]

## (6) 독도 명칭 표기 수정요청 이메일 전송 및 서명운동

다케시마 → 독도 고치기 운동

전에 광화문에서 외/내국인에게 다케시마를 독도로 수정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었다. 서명을 토대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거나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사이트를 찾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었다. 며칠이 지난 뒤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문법적인 오류가 다소 있었으며,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원래 작성했던 한국어 편지를 토대로 다시 편지를 영어로 번역했다. 그 후, 전에 편지를 보냈던 사이트를 제외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사이트를 찾았다.

### 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일본 외무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외務省

Skip to main content | FAQ | Site Map | Links | Japanese | Other Languages

Google Custom Search Search Post Size S M L

About Us | News | Foreign Policy | Countries & Regions | Consular Services

Top > Foreign Policy > Others > Japanese Territory > Takeshima

Japanese Territory

July 30, 2014

Tweet Like 2 e-mail

竹島  
Takeshima

Photo: Shisei Kuwabara

Takeshima Top

- ▶ Takeshima Information
- ▶ Takeshima Dispute
  - ▶ Recognition of Takeshima
  - ▶ Sovereignty over Takeshima
  - ▶ Prohibition of Passage to Utsuryo Island
  - ▶ Incorporation of Takeshima into Shimane Prefecture
  - ▶ Takeshima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 ▶ Treatment of Takeshima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 ▶ Takeshima as a Bombing Range for the U.S. Forces
  - ▶ Establishment of "Syngman Rhee Line" and Illegal Occupation of Takeshima by the Republic of Korea
  - ▶ Proposal of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 Q&A About the Takeshima Dispute
- ▶ Press Releases
- ▶ Reference Room
- ▶ Links

Japan-Republic of Korea Relations

**Japan's Consistent Position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akeshima**

Takeshima is indisputably an inherent part of the territory of Japan, in light of historical facts and based on international law.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occupying Takeshima with no basis in international law. Any measures the Republic of Korea takes regarding Takeshima based on such an illegal occupation have no legal justification.

Japan will continue to seek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akeshima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n a calm and peaceful manner.

Note: The Republic of Korea has never demonstrated any clear basis for its claims that it had taken effective control over Takeshima prior to Japan's effective control over Takeshima and reaffirmation of its territorial sovereignty in 1905.

Location Map

Surrounding Area

Detailed Map

Utsuryo Island Approx. 89km  
Takeshima  
Approx. 217km  
Republic of Korea  
Approx. 211km  
Approx. 67km  
Oki Islands  
Shimane Prefecture

Nishijima (China) Island  
Hiogashijima (Mejima) Island

竹島  
Takeshima

▶ Video: Takeshima - Seeking a Solution based on Law and Dialogue

▶ Leaflet: Takeshima (PDF)

▶ Pamphlet: Takeshima (10 pages) (PDF)

▶ 10 points to understand the Takeshima Dispute (PDF)

위 사진은 일본 외무성에 나와 있는 독도와 관련된 정보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

가 아닌 다케시마, 즉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수정 요구 이메일을 보내려고 이메일 주소를 찾고 있었는데, 이 정보를 입력한 곳의 전화번호와 주소만 나와 어려움을 겪었다.

## 일본외무성

**지도**

지도 데이터 이용약관

**사진**

**현지어** 外務省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분류** 기관/단체/종교 > 기관/대표처

**홈페이지** <http://www.mofa.go.jp>

**주소** 아시아 일본 일본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二丁目2番地1号  
거리 📍 [서울](로/으로)부터 1,158.5km

전화

@이메일

지도

주변

길찾기

내위치로

그러나 이메일 주소를 찾던 중, 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껴 일본 외무성의 산하 기구 중 하나인 국제부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을 보낸 곳이 독도와 상관이 없는 것을 대비하여 아래 내용에 “만약 기관이 독도에 대한 성향을 띠지 않고 있다면 다케시마 페이지를 작성한 기관으로 우리의 이메일을 전달해주거나, 혹은 그게 어렵다면 우리에게 그곳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심재언 <james1627@gmail.com>  
hagueconventio. 아게

19:56 (0분 전)

Hello  
I sent this mail to correct again your information about Dokdo. In your website which i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n your website, there were a contents about arguing the ownership of Dokdo. You insist that Dokdo is belong to Japan, but it is completely wrong. As a result, we wrote a letter with historical evidence why Dokdo is Korean territory. Please read below.  
+ I could not find the exactly email addres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nd I just found your email address on the website. If you don't have any relationship about it, please let us know about the email addres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or please retransmission this mail to them. Thank you

Dea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Hello. How are you doing?  
We are writing this letter because there are errors in your contents about Dokdo.  
We are Shim Jane, Choi Jung-hwa, Kim Ji woo, and Kim Junhee. We are currently attending to Youngho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which is located in Seoul, Korea. Also we are engaged in 'Dokdo protector project'. Our team name is DK03. That's closely related to why we currently send emails. Obviously, Dokdo is an official Korean territory. Takeshima is a Japanese name and so is the Sea of Japan. We are asking you to correct it to Dokdo and Sea of Korea (or Donghae/East Sea).  
First, please make an apology about the misnaming of Dokdo and the East Sea since it might have caused misconceptions. Second, please correct Takeshima and Sea of Japan to Dokdo and East Sea. Dokdo has belonged to Korea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ously insisted that they are the righteous owner of Dokdo, here are some historical evidence to prove that Dokdo belongs to Korea.  
1. The book called <the Sejong Geography Book> published in 1464 clearly shows Dokdo belongs to Joseon, which is the country that Korea successses. Also there is a map called <sinjeungdonggugyeonjiseungnam>. Dokdo is shown in this published map. Our ancestors showed those historical evidences. Even Japan knew a long time that our land is Dokdo, too. Dokdo can be found in the [Eight State Map], made by Japan in 1539 and they did not raise any problem.  
2. Japanese current announcement called Shimanae statement is also incorrect. Korean government issued "Imperial Decree No.41" that tells you that Dokdo belongs to Korea five years earlier.  
3. In 1905, Korea was occupied by Japan. At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y forced to take away Dokdo as Japanese territory. However before 1905, there are not such an official document that proves Dokdo belongs to Japan. In fact, Dokdo was not a Japanese territory in any way.  
On April 21, 2018 in Gwanghwamun, we gathered pedestrians' signatures to correct the wrong names on the map to Dokdo and East Sea. Therefore we gathered over 50 people's signature. Plus, most of the people in the community supports this movement.  
The conflict about Dokdo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quite sensitive and you must know it.  
Our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is that Dokdo is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in international law, a Korean territory.  
For these reasons, the names on the website must be changed.  
Sincerely,  
DK03.

↑ 일본 외무성에 보낸 메일의 내용

## 2)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

이 사이트는 국제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사이트이다.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Takeshima'라 치고 나오는 뉴스들을 확인한 결과, 꽤나 많은 기사들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했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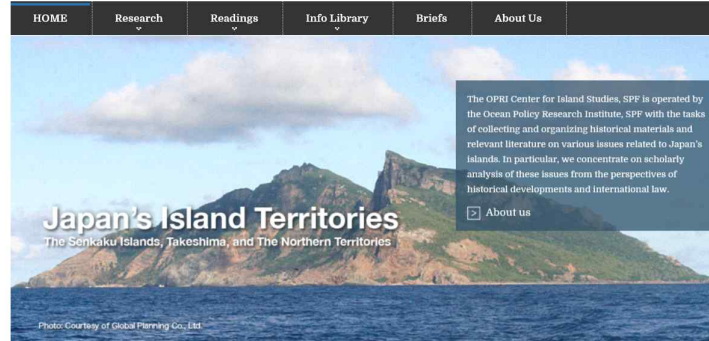
## Takeshima

### International Law and Japan's Territorial Disputes

by Raul (Pete) Pedrozo

Feb 06, 2018 PDF Download





## Japan Coast Guard Activities On and Around Takeshima

byHIROSE Hajime

Sep 22, 2017 PDF Download

## English-Language Research Papers Related to Takeshima Prepar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47

byTSUKAMOTO Takashi

## The "Critical Date" of the Takeshima Dispute

byMIYOSHI Masahiro

## The Meaning of the Territorial Incorporation of Takeshima (1905)

byTSUKAMOTO Takashi

특히 개중에는 같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똑같이 이메일을 쓰려고 주소를 찾아보려 했으나 따로 이메일을 보내는 곳이 없었다. 사이트를 찾아보던 도중,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발견하여 그곳에다가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다.

OPRI THE 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

Contact us

Thank you for your message.

### 3) Economist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 정치 경제 문화 주간지이다. 예전에도 한 번 메일을 보냈던 곳이다. 전에 보냈던 메일이 문법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어 우리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다시 이메일을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 Economist에게 보낸 메일

Title

Please correct Takeshim

Subject of your message [Required]

Our Projects

Your message [Required]

Hello. How are you doing?  
We are writing this letter because there are errors in your latest news article about Dokdo.

Confirm

Please correct Takeshim into Dokdo

심재민 <janes1627@gmail.com>  
letters에게

2023 (0분 전)

Dear,  
ECONOMIST

Hello. How are you doing?

We are writing this letter because there are errors in your latest news article about Dokdo.

We are Shim Jane, Choi Jung-hwa, Kim Ji woo, and Kim Junhee. We are currently attending to Youngho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which is located in Seoul, Korea. Also we are engaged in 'Dokdo protector project'. Our team name is DK03. That's closely related to why we currently send emails. Obviously, Dokdo is an official Korean territory. Takeshim is a Japanese name and so is the Sea of Japan. We are asking you to correct it to Dokdo and Sea of Korea(or Donghae/East Sea). First, please make an apology about the misnaming of Dokdo and the East Sea since it might have caused misconceptions. Second, please correct Takeshim and Sea of Japan to Dokdo and East Sea. Dokdo has belonged to Korea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ously insisted that they are the righteous owner of Dokdo, here are some historical evidence to prove that Dokdo belongs to Korea.

1. The book called <the Sejong Geography Book> published in 1454 clearly shows Dokdo belongs to Joseon, which is the country that Korea succeeds. Also there is a map called <sinjeungdonggugyeoljeunnam>. Dokdo is shown in this published map. Our ancestors showed those historical evidences. Even Japan knew a long time that our land is Dokdo, too. Dokdo can be found in the [Eight State Map], made by Japan in 1539 and they did not raise any problem.

2. Japanese current announcement called Shimanae statement is also incorrect. Korean government issued "Imperial Decree No 41" that tells you that Dokdo belongs to Korea five years earlier.

3. In 1905, Korea was occupied by Japan. At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y forced to take away Dokdo as Japanese territory. However before 1905, there are not such an official document that proves Dokdo belongs to Japan. In fact, Dokdo was not a Japanese territory in any way.

On April 21, 2018 in Gwanghwamun, we gathered pedestrians' signatures to correct the wrong names on the map to Dokdo and East Sea. Therefore we gathered over 50 people's signature. Plus, most of the people in the community supports this movement.

The conflict about Dokdo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quite sensitive. Our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is that Dokdo is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in international law, a Korean territory.

For these reasons, the names on the map must be changed.

Sincerely,  
DK03.

<한국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영훈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심재민, 최정화, 김준희,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DK03이라는 이름으로 '독도 지킴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메일을 보낸 이유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고, 동해라고 표현되어야 할 지역이 일본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시고, 다케시마는 독도로, 일본해는 동해로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독도는 예전부터 꼭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역사적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1.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530년에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팔도총도]라는 우리나라의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593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팔도총도]에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

2. 일본의 시네마 현 발표도 옳지 않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발표하기 5년 전인 1900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칙령 제 4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에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우리 땅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3.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빼앗기 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의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1일, 저희는 광화문에서 지도상의 잘못된 독도/동해 표기를 올바르게 고치자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저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어 수정 전>

Dear ECONOMIST

Hello.

My name is 30407 Shim Jane, 30414 Choi Jung-hwa, 30503 Kim Jun-hee, and 30504 Kim Ji-woo. We are currently attending Young Ho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We are engaged in ‘Dokdo protector of the project’. Our team name is DK03. That's closely related to why we currently send emails. Obviously, Dokdo is officially the first Korean territory as Takeshima and the region is about as the Sea of Japan to be expressed, donghae. Please make an apology that you incorreced right name for Dokdo and Donghae. Also, please correct Takeshima and Sea of Japan into Dokdo and Sea of Korea. Dokdo has long been recognized a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 are some historical evidence.

1. It says Dokdo is Korean territory in the <the Sejong Geography Book> compiled in 1454. Also there are map called<sinjeungdonggugyeojiseungnam> [Eight State Map,]. Dokdo is shown in this published map. This is our land. Our ancestors that showing by those historical evidences. Japan knew a long time that our land is Dokdo, too. Chosun is shown as Dokdo in the [Eight State Map,] made by Japan in 1539.

2. Japan's current Shimanae statement is also incorrect. Dokdo is Japan announced that their land to five years ago in the Korean government issued a ‘an Imperial decree No. 41’ in 1900. The decree clearly says that Dokdo belongs to the Ulleung Island, in our land.

3. In 1905, Japan's Dokdo until forced to take away Dokdo as Japanese territory not official document of the Japan is. In fact,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in no uncertain terms that it's record.

On April 21, 2018 in Gwanghwamun, we're having citizens' signature to correct the name of map of Dokdo and East Sea. Just number of people that we had signature on paper was not so many. However there are lot of people who have the same meaning as we do.

Our government's official announcement is that Dokdo is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in international law, it is clearly our own territory."

Because of those reasons, we want to adjust to change your map. Takeshima into Dokdo and Sea of Japan to Sea of Korea.

수정된 영어 편지

Dear,  
ECONOMIST

Hello. How are you doing?

We are writing this letter because there are errors in your latest news article about Dokdo.

We are Shim Jane, Choi Jung-hwa, Kim Ji woo, and Kim Junhee. We are currently attending to Younghoon International Middle School which is located in Seoul, Korea. Also we are engaged in 'Dokdo protector project'. Our team name is DK03. That's closely related to why we currently send emails. Obviously, Dokdo is an official Korean territory. Takeshima is a Japanese name and so is the Sea of Japan. We are asking you to correct it to Dokdo and Sea of Korea(or Donghae/East Sea).

First, please make an apology about the misnaming of Dokdo and the East Sea since it might have caused misconceptions. Second, please correct Takeshima and Sea of Japan to Dokdo and East Sea. Dokdo has belonged to Korea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ously insisted that they are the righteous owner of Dokdo, here are some historical evidence to prove that Dokdo belongs to Korea.

1. The book called <the Sejong Geography Book> published in 1454 clearly shows Dokdo belongs to Joseun, which is the country that Korea successes. Also there is a map called<sinjeungdonggugyeojiseungnam>. Dokdo is shown in this published map. Our ancestors showed those historical evidences. Even Japan knew a long time that our land is Dokdo, too. Dokdo can be found in the [Eight State Map], made by Japan in 1539 and they did not raise any problem.

2. Japanese current announcement called Shimanae statement is also incorrect. Korean government issued "Imperial Decree No.41" that tells you that Dokdo belongs to Korea five years earlier.

3. In 1905, Korea was occupied by Japan. At during that period of time, they forced to take away Dokdo as Japanese territory. However before 1905, there are not such an official document that proves Dokdo belongs to Japan. In fact, Dokdo was not a Japanese territory in any way.

On April 21, 2018 in Gwanghwamun, we gathered pedestrians' signatures to correct the wrong names on the map to Dokdo and East Sea. Therefore we gathered over 50 people's signature. Plus, most of the people in the community supports this movement.

The conflict about Dokdo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quite sensitive.

Our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is that Dokdo is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in international law, a Korean territory.

For these reasons, the names on the map must be changed.

Sincerely,

DK03.

일본 외무성이나 Economist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이트이다. 따라서 답변을 받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직접 편지를 영어로 번역하고, 직접 편지 보낼 사이트를 찾고, 메일을 보냈다는 것에 의의를 둘 것이다. 또한 Y국제중학교 국제 교과서에 보면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지도가 나온다. 학교 측과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이메일을 보내 수정을 권고하고 싶었으나 학교 전용 이메일이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았고, 시간 상 학교 측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불가능했다. 따라서 아직 담당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리진 못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끝난다면, Y국제중학교 국제책의 삽입되어 있는 지도를 수정한 후, 그 지도를 만든, 또는 그 지도가 들어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 또 다른 발전된 수정 권유 메일을 보내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을 것이다.

#### (7) ‘당신은 독도에 대해 잘 아시나요?’ 강연 활동

2018년 8월 7일,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독도 관련 강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강연을 할 장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평창동 주민센터 3층 문화센터였다. 우리 DK03 조원들이 모두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모두에게서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평창동 주민 센터에서 하는 것이 최선이였다. 이곳을 빌리기 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연할 곳을 빌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모두의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이 힘들었다. 우리가 강연할 예정인 장소들에서 모두 우리를 대신한 홍보를 해줄 수 없다고 하기에 앞길이 막막했다. 따라서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참여를 부탁해 청취자들을 모았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대관료도 적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에 편한 접근성이 좋은 평창동 주민센터를 고르게 되었다. 강연은 두 시부터 네 시까지 총 두 시간 동안 두 가지의 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먼저, 앞의 1시간은 PPT를 통해 우리 팀원의 발표를 듣고 독도 관련 영상을 보는 시간이 되었고, 나머지 1시간은 독도와 관련된 낱말 찾기 활동지와 질의응답을 통해 강연을 보러 와준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 – 강연에 사용했던 PPT

PPT는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PPT 템플릿은 김준희 학생이 제작했으며, 현재 DK03팀이 만든 카페인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독도’에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PPT의 목차로는 “독도에 대해 아시나요?“, “독도의 역사적 사실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한국 vs 일본)“,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순이다.

“독도에 대해 아시나요?“는 심재인 학생이 발표했으며,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첫 슬라이드에는 독도의 우편번호와 섬의 주소,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89개의 부속 도서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온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독도의 지형이 나온다.

“독도의 역사적 사실들“은 김지우 학생이 발표했다. 첫 슬라이드에서는 독도에서 일어난 사건,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이 기록된 문헌의 제작 연도를 타임라인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독도 이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타임라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해외에서 독도를 부르는 이름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프랑스의 “리앙쿠르 록스”, 그리고 영국의 “호네트 암”을 예시로 들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했다. 삼국시대에 태어난 이사부 장군부터 조선시대 사람인 안용복 장군, 근대 인물로는 홍순칠 선생님 등 독도를 지키시는 데 큰 기여를 한 분들을 위주로 소개했다.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에 대해서는 최정화 학생이 발표를 진행했다.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주장, 즉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3가지를 들고, 이를 반박했다. 첫 번째 주장은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고지도인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와 ‘조선동해안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반박 근거 자료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독도는 육안으로 관측이 되기에, 울릉도에 사람이 살 때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은 17세기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이다. 반박 자료로는 일본의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와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의 기록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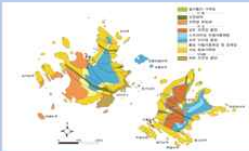
마지막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진을 이용하였다.



← 원활하게 읽을 수 있도록 캡처할 때 임의로 순서를 배열하였으며, 1→

2→4→5 순으로 읽으면 된다.

### 독도의 자연환경은 어떤가요?



독도는 화산활동에 의하여 생긴 화산암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동식물들과 해조류, 어류 등이 공존하는 곳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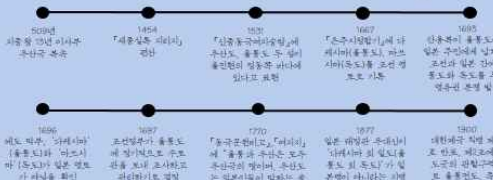
★

### 독도의 역사적 사실들

2

★

### 독도에는 어떠한 역사가 얹혀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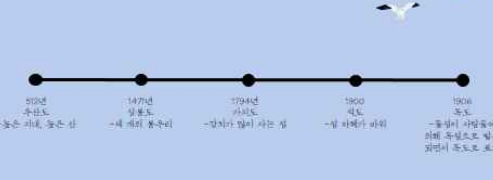


독도는 아직까지도 일본과 얹혀 있는 셈이다. 때문에 사람들의 독도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4

★

### 독도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5

★

### 해외에서는 독도를 어떻게 부를까?

- 일본에서는 명치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다가, 1905년 영토편입 이후부터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름
- 서양에서는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이름을 붙임
  - 2-1)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으로 명명함
  - 2-2) 1885년 영국함선 호넷호 또한 '호넷 암(Hornet Rock)'으로 명명함

1

★

###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

- 안용복(1658 ~ ??)
  -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에도 막부로 하여금 일본인의 울릉도 장입 및 활동금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아냄
  - 그 이전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 소지가 있었으나 안용복의 공으로 인해 한참 뒤 고종 임금 때까지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음
  - 그 뒤 일본 어선들이 함부로 울릉도에 상륙하지 못하게 되었음

2

★

###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

- 이시바(?? ~ ??, 신라 지증왕 시절)
  - 512년 우산국을 정벌
  - 이따 사자(전설의 동물)를 나무로 채워와 적에게 항복 요구
- 홍순집(1929년 1월 23일 ~ 1986년 2월 7일)
  - 울릉군 상이 전역자를 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 국합/경찰과 공조하여 독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경비 활동을 함
  - 독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有效控制 행사하는 데에 기여
  - 독도에 나무를 심기, 대형 태극기 설치, 급수장 설치 등 독도 지키기 및 가꾸기 활동을 함

4

★

###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한국 vs 일본)

5

★

아래는 발표를 진행한 발표자들의 사진이다.

↑ 심재인 학생

↑ 김지우 학생

### 1.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

512년 - 신라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신라가 우산도를 복속함

1-1)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음
-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지도, 『개량 일본아오노정전도』(1779년), 동 일본의 지도를, 문헌이 이를 확인

1-2) 주장의 허구성

- 『개량 일본아오노정전도』의 1779년 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양의 학의 선으로 인식
- 일본 해군성의 『조선해안도』(1876년)와 같은 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포함함

###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2-1) 일본의 주장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음
-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

2-2) 주장의 허구성

-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보는 것이 가능,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 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음
- 예)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통감문헌비고 (1770년), 민기요람 (18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항부 문헌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됨
- 통감문헌비고 (1770년), 민기요람 (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활하는 섬도"라고 기록됨

### 3. 17세기 독도의 영유권 확립?

3-1) 일본의 주장

-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경리장이나 이차지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독도의 영유권 확립
- 에도시대 초기(1618년), 독도(독도)의 주민들이 막부로부터 바다를 건너 수 있는 연비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도(독도)로 이동을 하며 경비를 받기 위해 연안함
- 독도는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나 도종의 경리장이며, 갈차나 전보포트를 하기 좋은 여장으로 이용

3-2) 주장의 허구성

- 도항연하는 내국 선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치 않는 문서임
-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서인 『문주사정환기』(1667년)는 "일본의 서북쪽 한 개를 요격섬으로 한다"고 기록함
- 1877년 일본 국기(1870년)인 대정초본 17세기(18) 한일전 교섭기록을 토대로 "독도(울릉도)와 일본(독도)의 근해 대해 일본은 관 개가 없다"는 것을 영유권 개"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
- 일본의 『조선국고지세(내항사)』(1870년)에서 "독도(울릉도)와 울도(독도)가 조선영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함

###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 독도 지킴이 선발 대회

양문국제중학교  
30407 심재민  
30414 최경화  
30504 김준희  
30505 김지우

### 독차

(1) 독도에 대해 아시나요?

(2) 독도의 역사적 사실들

(3)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한국 vs 일본)

(4)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 독도에 대해 아시나요?

### 독도는 어디에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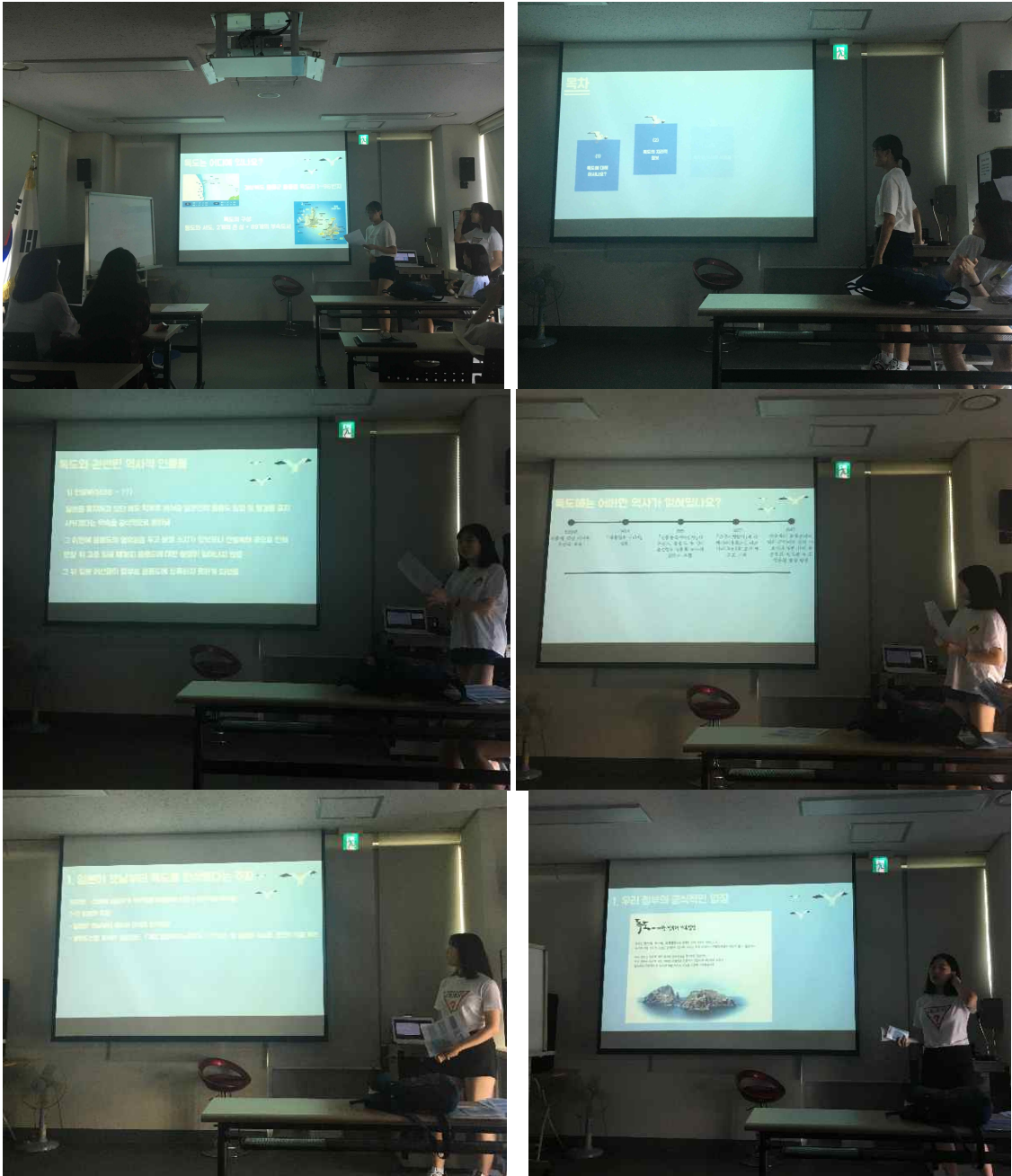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독도의 구성: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 + 89개의 부속도서

↑ 최정화 학생

## － 독도와 관련된 단어 찾기 활동

이번 강연에서 할 활동 중 하나인 ‘워드 서치(word search)’라는 게임을 기획했다. 독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여러 글자가 섞여있는 상자 안에서 찾는 활동이다. 찾아야 하는 단어는 총 22개로, 첫 번째 문제는 “참나리, 이사부, 안용복, 세종실록지리지, 강치, 독도, 우산도, 울릉도,



화산암, 송도, 주민숙소, 동도, 서도, 리앙쿠르 록스, 홍순철, 동국문헌비고, 황금어장, 만기요람, 전복, 멸종위기종, 우산국, 사자”를 모두 찾는 것이었다. 독도의 명칭, 역사적 인물들, 관련 서적, 생태계, 시설, 지리적 특징 등을 위주로 넣었다.

위 상자에 나오지 않은 단어여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PPT에서 발표한 내용과, 독도와 관련이 있는 단어를 추가해서 넣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할미새’, ‘오키섬’, ‘대구’, ‘오징어’, ‘리앙꾸르호’,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해양생물’, ‘경비대’, ‘화산’, ‘섬괴불나무’ 등이 그 예시이



## DK03

참나리 이사부 안윤보 세종실록지리지 감치 독도 우산도 울릉도 화산암 순도 주민속소 동도  
서도 리양크르로스 홍순철 동국문헌비고 황급어장 만기요람 전보 밀중의기총 우산국 사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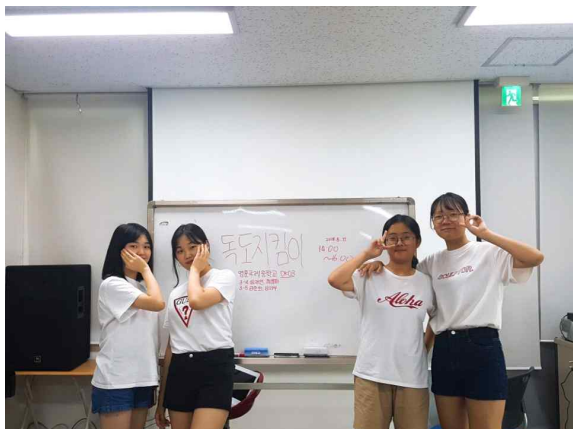
- 37 -

도 마찬가지였다. PPT와 팸플릿에 독도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이 단어를 넣었다. 워드 서치가 끝나고 간단하게 강치, 팽이갈매기, 습새와 섬피불나무, 왕호장근 등과 같은 동식물에 대해 설명했다. ‘호네트 암’같은 경우는 독도를 발견한 영국의 군함, ‘호네트 호’로부터 비롯된 이름이다. 대다수의 나라가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하는 것에 반해, ‘호네트 암’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기회를 통해 알려주고 싶어 단어로 넣게 되었다. 이를 설명할 때 대다수의 나라가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지 않고 ‘리앙쿠르 록스’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독도는 일본과 한국, 두 국가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 또는 ‘다케시마’ 중 하나로 부르기 어렵다. ‘리앙쿠르 록스’는 중립적인 성향을 띤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를 사용한다고 했다. 설명을 하며, 우리 발표자들뿐만 아니라 청취자들 또한 독도와 동해가 올바르게 불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발표는 다행히도 무사히 끝났다. 맨 처음 강연을 기획할 때는 2타임으로 나눠 첫 타임에는 50분은 동영상과 PPT를 통한 발표를 진행하고, 쉬는 시간으로 10분을 제공하려고 했다. 그러나 발표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 20분이 쉬는 시간으로 들어갔다. 발표 후반부에는 힘들고 졸려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잘 경청해서 발표를 들어주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사용한 동영상은 총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동영상은 MBC의 <무한도전X역사:독도-박명수&딘딘, 위대한 유산>으로 총 10분 11초 길이의 동영상이었다.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설민석 선생님의 강연과 함께 동영상 마지막에 박명수와 딘딘의 ‘독도리’라는 노래가 나와 좀 더 친근하게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총 4분 18초 길이였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작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였다. 첫 동영상보다 재미는 덜 하지만, 외교부에서 제작한 만큼 퀄리티가 높고 교육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 유익하다고 판단하였다. 전원이 동영상 보는 것을 즐겼고, 분위기를 활발하게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두 번째 타임에는 심재인 학생이 제작한 WORD SEARCH 게임을 진행하였다. 말 그대로 여러 글자가 혼합되어 있는 상자 안에서 특정한 단어를 찾으려면 되는 게임이다. 참가자 대부분이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위해 비슷해 보이는 단어를 넣거나 한 글자의 배열만 바꿨다. 더불어, 상자 안에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발표 때 설명하거나 독도와 관련이 있는 단어를 넣었다. 우리 팀원들도 함께 문제를 풀었는데, 조금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외에는 초성 힌트가 주어진 특정 단어를 찾는 문제가 있었는데, 단어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전보다는 덜 적극적이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아래는 발표자들과 참관자들의 사진 및 참관자들의 후기이다.



↑ DK03팀 단체 사진



↑ DK03팀과 참관자들의 사진

**화난 튜브**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온 문제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 있었고 나 또한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좋은 기회를 통해 독도를 알려줘서 고맙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들은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 내가 미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다. 독도 명칭의 역사나 강지 이야기 등 새로운 지식을 접해서 평소 내가 독도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발표 뿐만이 아니라 함께 활동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발표 때 나누어준 팸플렛 자료의 질도 매우 좋아서 실제 교육 자료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어려모로 친구들이 많이 노력 한 것이 느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통해 독도에 대해 알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영훈국제중학교 3학년 4반 이휘 학생 후기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3학년 조수민 학생 후기

**멋쩍은 튜브**

독도에 대해 내가 많은걸 모르고있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독도의 이야기에대해 알고 많은걸 깨닫게 될수있어서 좋았다



- 강연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홍보 포스터



홍보 포스터로 기대하는 바는 팸플릿을 제작한 바와 같이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이유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배경을 분홍색으로 만들었다. 또한 각 파트의 제목은 색깔을 바꿔서 사용하고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는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눈에 띄이게 만들고자 했다. 포스터인 만큼 최대한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독도의 홍보 포스터는 독도의 생태계와 시설 등의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첫 번째 파트로 들어있다. 두 번째 파트는 독도의 역사에 대한 것으로 독도의 이름이 바뀌어간 과정과 이사부와 안용복이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규정한 사실에 대해서 쓰여져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중세 일본의 지도와 조선의 문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을 이용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독도가 현재 역사왜곡에 휘둘러있다는 홍보 포스터 제작 의도인 한국 영토인 이유를 기억하자는 문구를 남겼다. 변의 형식으로 동도와 서도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해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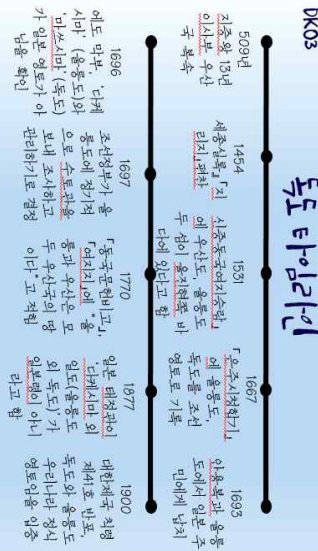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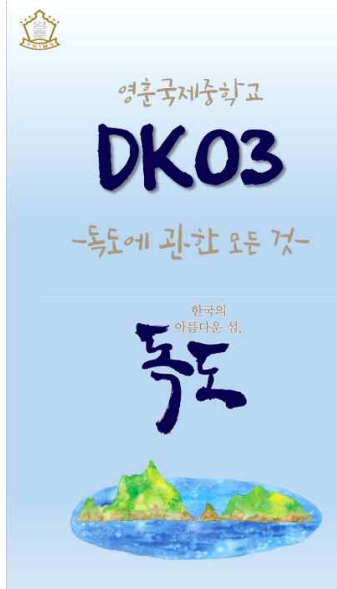


## (8) 독도를 더 자세히 알리는 팜플렛 제작 및 배부,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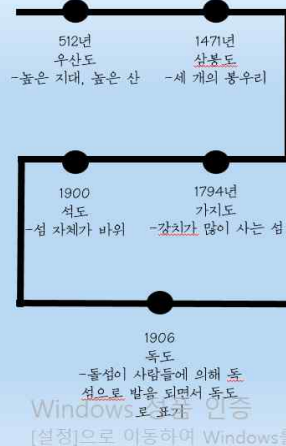
팜플렛은 독도의 역사, 독도 이름의 변천사, 독도의 지형과 생태계,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근거에 대해 쓰여졌다. 총 6페이지로 3단 접지식으로 인쇄되었다. 독도의 역사와 이름의 변천사는 타임라인 형식으로 그려졌고 독도의 지형은 표 형식으로, 독도의 생태계는 사진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독도의 역사 부분은 ‘509년 이사부 우산국 복속’으로 시작해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로 끝매졌다. 총 순서는 ‘509년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복속’, ‘1454년‘세종실록지리지 편찬’,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쪽 바다에 있다고 함’, ‘1667년 은주시청합기에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 ‘1693년 안용복과 울릉도에서 일본 주민에게 납치’, ‘1696년 에도 막부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확인’, ‘1697년 조선정부가 울릉도에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배 조사하고 관리하기로 결정’, ‘1770년 동구문헌비고와 여지지에 울릉도와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라 적힘’, ‘1877년 일본 태정관이 다케시마 외일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함’,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독도와 울릉도 우리나라 정식 영토임을 입증’이라는 순서로 정리했다. 독도 이름의 변천사 역시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512년 우산도{높은 지대, 높은 산}에서 ‘1471년 삼봉도(세 개의 봉우리)’로 바뀌었으며 그 후, ‘1794년 가지도(강치가 많이 사는 섬)’으로 바뀌었다. 후에는 ‘1900년 석도(섬 자체가 바위)’로 바뀌었고 이로부터 6년 후인 ‘1906년 독도(돌섬이 사람들에게 의해 독섬으로 발음 되면서 독도로 표기)’로 바뀌게 되었다. 다음 파트는 독도의 지형에 대한 설명이었다. 독도의 지형은 독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 북위, 동경, 면적, 높이, 둘레, 시성 등을 표로 만들어 설명했다. 독도의 생태계는 독도의 지형적 특징과 강치, 식물로 크게 3파트로 나누어 제작했다. 지형적 특성에는 기반암과 주요 지형에 대해 쓰였고 강치는 강치의 특성 및, 독도 강치의 멸망에 대해서 서술되었다. 식물 부분은 총 식물의 수와 환경부 지정특물종에 대해서 설명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당 부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근거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의 독도 점거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팜플렛을 마무리 지었다. PPT를 이용해서 팜플렛의 디자인과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각 슬라이드 당 하나의 파트를 넣는 것과 제목 1슬라이드로 합쳐서 6슬라이드를 제작했다. 이 슬라이드를 앞쪽 3슬라이드, 뒤쪽 3슬라이드로 나누어서 3슬라이드 당 한 화면으로 모아 넣었다. 이 후, A4크기의 150g 아트로 인쇄하는 과정에서 사이즈가 위아래로 여백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쇄한 50부의 위아래를 양 옆의 여백사이즈만큼의 길이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50부의 팜플렛을 제작하였고, 각 페이지마다 팀명인 ‘DK03’을 넣음으로써 출처를 확실하게 밝히고자 했다.

이 팜플렛을 강연을 들으러 왔던 학생들과 주변 지인들, 국어학원, 과학학원 등에서 배포를 허가받고 학생들에게 돌리면서 독도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관한 확고한 주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기대하는 바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사실이기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근거를 10대에게 물어본 결과, 제대로 대답한 학생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설문결과가 있는 기사를 보고 이 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팜플렛을 받아본 사람이 팜플렛에 쓰여진 독도의 역사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읽어보게 될 것이고 나중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외국인에게 질문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도 팜플렛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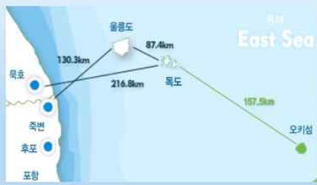
DK03 독도 이름 변천사



<독도 팜플렛 뒷면>

독도의 지형

DK03



	동도(동남쪽)	서도(서북쪽)
북위	37° 14' 26.0"	37° 14' 30.6"
동경	131° 52' 10.4"	131° 51' 54.6"
면적	73,297m²	88,740m²
높이	90.6m	168.5m
둘레	2.8km	2.6km
시설	잠시설, 경비대, 현11장, 유산등록 등	주민숙소, 등반로, 용유시설 등

독도의 생태계

DK03

**지형적 특성:**  
 - 화산암이 기반암(화산섬)  
 - 주지형: 화산 지형, 구조 지형, 해안 지형  
 - 풍화현 광범위하게 분포  
**갯지:** 몸길이 2.5m 내의 군집생활을 하는 동물  
 - 19세기 초반, 약 4만~5만 마리에 이르렀음  
 => 멸종하여 독도의 수호신 수호동물로 불림  
 - 1905년 이후 일본에 포획된 갯지 1만 4000여 마리  
 -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멸  
 - 1975년 멸종



**식물:**  
 - 총 59종류가 독도에 자생  
 - 왕호장군, 참나리, 갯까치수염은 환경부 지정 특적식물중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

DK03

1.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근거  
 -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함.  
 - 일본의 여러 지도들은 오히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표시했음.  
 - 한국의 독도 점거가 불법이라는 일본의 주장과는 다르게, 많은 문서들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음.  
 -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제한했으나, 한국측이 이를 거부함.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
2. 독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 (9)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한 강치 이모티콘 제작 및 등록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는 개인 또는 기업이 카카오 측의 심사를 거쳐 이모티콘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하나 당 2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손쉽게 원하는 이모티콘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또, 이모티콘 스토어에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된 이모티콘들이 척척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다. 이에 따라 우리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5, 60대 노인층까지 일상 속에서 독도에 대해 한 번 더 상기하고 지인과의 대화에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강치 이모티콘’을 만들자고 결심했다. 태블릿과 전문 프로그램 대신 휴대폰에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협소한 방식을 택했고, 집 가는 길이나 자기 전에 짬짬이 시간을 내어 그렸기 때문에 이모티콘의 질은 높지 않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출시된다면 이로 인해 얻은 수익금을 전액 독도경비대에 기부하기로 정해 놓았다.

그림을 그릴 어플은 안드로이드와 iOS 등 거의 모든 휴대폰 기종에 설치할 수 있는 ‘메디방’이라는 어플이다. 일본에서 출시된 이 어플은 휴대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의 사이틀, 포토샵 등과 맞먹는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만화 작업이 가능할 정도이며 카카오톡 측에서 이모티콘 제안을 받을 때 제시하는 조건인 그림 사이즈 및 해상도 조절, 배경 투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플을 택했다. 이모티콘은 김지우 학생이 한 달에 걸쳐 강치를 모티브로 한 24개의 캐릭터 그림을 그려내었다.

24장의 사진을 모두 그려낸 후에는 카카오 홈페이지의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접속하여 이모티콘 제안을 하였다.

### 신규 제안

•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이모티콘 정보

스튜디오 유형



머춰있는 이모티콘

OPEN STUDIO

이모티콘 제목

독도의 귀요미 강치

이모티콘 시리즈명

- 이모티콘 시리즈명 신규 등록 -

강치와 독도

이모티콘 설명

독도의 마스코트, 강치가 보여주는 귀여운 감성변화와 다양한 표정들. 친구들과의 사소한 대화에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독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폭넓게 쓰이는 신조어와 청소년의 심리를 잘 반영한 이모티콘.

120/200자

참고 사이트

해당 이모티콘과 관련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

참고 자료 첨부

해당 이모티콘 심사에 도움 될 수 있는 기타 참고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주세요.

찾아보기

\* 20MB 미만, Zip파일로 올려주세요.

이모티콘 제목은 ‘독도의 귀요미 강치’로 하였고 시리즈명은 ‘강치와 독도’로 정했다. 이 시리즈로 꾸준히 이모티콘을 제작할 생각은 전무하기 때문에 시리즈명과 이모티콘 제목이 어느 정도 중복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모티콘 설명란에는 이 이모티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것이 주는

효과에 대해 적었다. 특히 ‘TMI’, ‘왕자님’, ‘공주님’ 등 청소년이 폭넓게 쓰는 신조어 등을 통해 관심

## 이모티콘 시안(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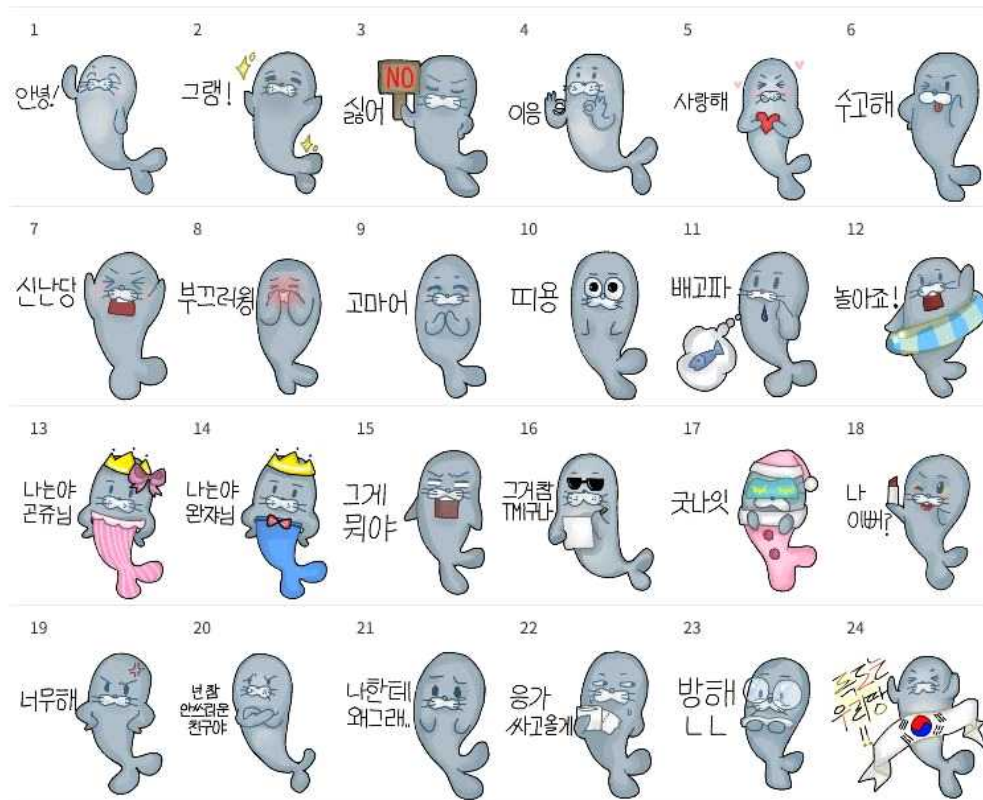
이미지 형식 : PNG(배경투명, 24종)

이미지 개수 : 총 24종 필수

이미지 사이즈 : 360x360(px)

제작 가이드를 참고하여 업로드 해 주세요.

[제작 가이드 >](#)



을 더 끌어 모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이모티콘 시안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린 24장의 그림을 첨부하였다. 대부분 카카오톡 대화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림들을 넣었고, 24번째 그림에는 강치가 상징하는 독도를 위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자랑스러운 문구도 넣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모티콘을 등록한 김지우 학생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이모티콘을 제안하였다. 카카오톡 측에서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의 심사 과정을 거쳐 상품화 여부를 결정한다니 기대해 볼 만하다. 현재 이모티콘은 심사 중인 상태이며, 상품화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제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모티콘 심사 결과는 1개월 이내에 이메일 / 제안 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안상태	스튜디오 유형	이모티콘 제작	이모티콘 시계조명
심사완료	오픈스튜디오에 등록된 이모티콘	독도의 귀요미 강치	강치와 독도

[제안 관리](#)

#### (10) 독도의 역사를 담은 단편 웹툰 제작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더불어 독도에 대해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네이버 웹툰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로 하였다. 대화중에 사용하는 이모티콘과 달리 만화는 사람들이 읽고 정보와 감동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재미있게 풀이하는 식의 만화를 그리면 될 것 같았다. 이 역시 김지우 학생이 메디팡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그렸다. 프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전만화로 시작해야 하였다. 따라서 썸네일을 새롭게 등록하고 강치 캐릭터가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들어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만화를 등록했다.

네이버 만화에서 ‘독도는 왜 우리 땅일까’를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만화이다. 다음은 우리가 등록한 만화의 썸네일과 그 내용,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다.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SNS에도 홍보를 하였다. 25명이 별점을 주어 별점은 9.28이 되었고 조회수는 1136회, 3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 중에는 내 만화에 보태어 추가적인 증거를 첨언하는 댓글도 있어서 사람들이 독도를 인식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웹툰을 그리는 과정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알도록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생각하고 고민했던 계기가 되었다. 핸드폰으로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로 옮겨 편집하고 처음 올렸던 웹툰이기 때문에 실수도 잦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으며 진행도 지금 검토해보니 조금 어색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을 봐 주었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정당한 이유들을 알렸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

아래는 직접 제작한 웹툰의 한 화이다.



왜?

한반도와 함께 해온 독도



독도는 오랜 세월을 한반도와 함께 해 왔어.



다케시마?

독도가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의 이목을 끈  
것은 언제일까?

유명한 안용복  
이야기는 다들 알지?



조선에서 독도를 지켰던  
유명한 어부, 안용복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조선이 근대화되면서 많은 일본인  
들이 울릉도로 오기 시작했어.



고려에서는 울릉도에  
사람들을 거주시켰지만



풍랑으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하자  
중앙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하는 일까지 생겼어.

1905년 러일전쟁 때 일본은  
독도와 군사적, 지리적 가치  
를 알게 되고,



강국 독도를 '주인 없는 섬'  
으로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시네마면에 편입했어.

독도? 다케시마?



현재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 당연히 동쪽  
되어 있는 상태야.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The End*

독도는 우리 땅!



### 3. 활동 결과와 느낀 점

30407 심재인

이번 자기주도 연구과제는 나에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입학 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자기주도연구과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독도 강연과 영어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었다. 먼저 독도 강연 같은 경우는 학교 친구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거의 처음이라 많이 떨렸다. 또한 사람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우리가 기획한 활동들에 열심히 참여해 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강연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워드서치 같은 경우도 모두 친구들을 비롯해서 참가자들 또한 즐겨주어 개인적으로 많이 고마웠다. 아쉬운 점은 홀대관을 확정지었을 때와 강연 날짜가 정해진 시기가 얼마 차이나지 않아 홍보를 많이 못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여유롭게 홀을 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그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싶다. 다음으로 영어편지는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다. 맨 처음 편지를 썼을 때는 몇 달 전이었다. 급하게 번역을 해서, 문장 구조도 잘 맞지 않았고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도 더러 있었다. 따라서 편지를 다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도 지난 3~4개월 동안 는 게 있었는지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있었다. 사전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번역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한 일이어서 뿌듯했다. 지난 시간 동안 팀원 모두 학교와 학원을 병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힘들었을 것이다. 광화문에서 더운 날씨에 걸어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독도 봉사를 하러가고, 늦은 시간까지 계획을 구성하고 또 보고서를 썼으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활동에 참가했다. 모두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30414 최정화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관련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독도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독도 명예주민증을 갖기도 하였지만 자의로 독도를 위해 자의적으로 한 행동을 했던 적은 많지 않았다. 항상 머릿속으로 독도를 홍보할 방법을 생각했지만, 이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독도 지킴이 선발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가볍게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독도에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독도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알림으로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자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에게까지 그저 ‘작은 섬’으로 인식되는 독도를 ‘소중한 대한민국의 섬’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자는 생각을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목표로 삼고 활동을 진행했다. 독도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일, 독도 배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낮은 가격대로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일, 독도를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일, 독도 홍보 카페를 만드는 일, 독도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는 일, 독도와 관련된 강연을 진행하는 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한 사이트에 대한 수정요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는 일 등 뿌듯하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독도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처음에는 조원들과 손발이 잘 맞지 않아서 약간 힘들었지만 두 번째 봉사활동 때는 손발이 맞고, 어느정도 익숙해져서 저번 봉사활동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 좋았다. 봉사의 의의를 더 깊게 이해하고 목표에 나아간다는 성취감이 들어서 세 번째 봉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서명운동을 받을 때 거절도 당했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응원과 칭찬의 말들이 더운 날에도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무섭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외국인에게 영어로 독도를 설명하는

일도 이들의 관심어린 눈빛을 통해 편안히 웃으며 적응할 수 있었다. 진행한 모든 활동들이 목표한 큰 틀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다음 활동을 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받은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으로 완벽하게 인정받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30504 김준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독도 프로젝트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학을 이용해 친구들과 함께 직접 처음부터 계획하고, 어느 도움도 받지 않고 배지를 제작하고 서로 만나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하니 진짜 작은 독도 관련 시민 단체가 된 기분이었다. 이번 자기주도 연구과제를 통해 독도에 대해 평범하게 알고 있던 중3이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한 기분이 가장 강하게 들었다. 솔직히, 말로는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독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직접 무언가 하려는 시도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독도를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건네고, 사비를 들여 손해를 보면서까지 독도를 기념하는 배지를 제작하고, 독도에 대해 더 알리고자 하는 카페도 개설하고, 이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우리 팀이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여름방학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미루지 않고 계획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세운 계획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는 모습들이 다들 정말 멋있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독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말로만 세웠던 계획을 진심으로 실천해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 30505 김지우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 중 하나가 '독도는 우리 땅!' 이었다. 하지만 무작정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머리에 있었지 독도가 어떤 곳이고 왜 그렇게 작은 섬이 큰 화제를 불러왔는지는 전혀 몰랐다. 1학년 때 학교 수행평가로 독도 홍보활동을 하면서 알게나마 공부했던 기억도 희미해질 즈음, 이번 '독도지킴이대회'라는 기회를 빌려 내가 독도와 한 발짝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삼국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으며 그곳이 터전이었던 희귀생물 강치가 일제의 무단 포획으로 멸종되는 수난을 겪은 독도. 그 독도를 위해 숫자에 약한 내가 대여섯 번씩 샘을 해 가며 배지를 판매해 그 수익을 계산하고, 힘들게 그려 내고 주문하고 홍보하여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기부했다. 또 집에서 결코 가깝지 않은 광화문에서 발품을 팔며 생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얻은 수많은 서명과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이번 독도지킴이대회를 통해 얻은 것은 독도에 대한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니다. 한 장 남짓 계획서에 빼곡히 적혀 있던 계획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추진력, 배지를 디자인할 때 어떤 것이 더 인기가 있을까 하면서 그렸던 진지함, 독도 필통 봉사를 하면서 생긴 인내심과 근육통, 광화문에서 내외국민 모두에게 말을 걸고 설명하는 용기와 13,000여 보를 걸어 다니며 생긴 고단함,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과 맺어진 소중한 인연. 이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게 된 값진 보물이며 당분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웹툰 그리기와 이모티콘 출품은 비록 자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을 때, 학원이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조금씩 조금씩 그린 것이지만 나 혼자서의 재능을 활용한 작은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이로운 관심과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주 뿌듯하다. 약 3개월간 독도지킴이대회가 아니었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내 중학교 생활의 피날레로 남을 인상 깊은 체험을 할 기회를 준 것에 매우 감사한다.

### 3. 활동 결과와 느낀 점

30407 심재인

영훈의 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니 왠지 더 애착이 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다 같이 광화문에 가서 독도를 홍보한 것이다. 팸플렛부터 하나하나 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서 더욱 보람찼던 것 같다. 중간에 거절도 가끔 당하고, 계속 걷다 보니 힘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따듯하게 사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또한 외/내국인 관계없이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몇몇 분들은 먼저 가서 설문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와주셨다. 박물관 근처에서 여러 어린이 친구들도 만났다. 다들 독도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나도 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사실 등, 예전에는 많이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새로 알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도 독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살핌을 줄 것이다.

30414 최정화

초등학교 때부터 독도관련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독도에 직접 가보기도하고, 독도 명예주민증을 갖기도 하였지만 자의로 독도를 위해 자의적으로 한 행동은 없었다. 항상 머릿속으로 독도를 홍보할 방법을 생각했지만, 이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독도 지킴이 선발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가볍게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독도에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독도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알림으로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에게까지 그저 '작은 섬'으로 인식되는 독도를 '소중한 대한민국의 섬'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자는 생각이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힘을 주었다. 독도 배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낮은 가격대로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일, 독도를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설명하는 일, 독도 홍보 카페를 만드는 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한 사이트에 대한 수정요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받는 일 등 뿌듯하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서명운동을 받을 때 거절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응원과 칭찬의 말들이 더운 날에도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뿐만 아니라 무섭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외국인에게 영어로 독도를 설명하는 일도 이들의 관심어린 눈빛을 통해 편안히 웃으며 적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받은 따듯한 마음들이 모여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으로 완벽하게 인정받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0504 김준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독도 프로젝트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친구들과 함께 직접 처음부터 계획하고, 어느 도움도 받지 않고 배지를 제작하고 서로 만나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하니 진짜 작은 독도 관련 시민 단체가 된 기분이었다. 독도에 대해 평범하게 알고 있던 중3이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한 기분이 가장 강하게 들었다. 솔직히, 말로는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독도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직접 무언가 하려는 시도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독도를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도 건네고, 사비를 들

여 손해를 보면서까지 독도를 기념하는 배지를 제작하고, 독도에 대해 더 알리고자 하는 카페도 개설하고, 이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우리 팀이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서로 미루지 않고 계획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세운 계획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는 모습들이 다들 정말 멋있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독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말로만 세웠던 계획을 진심으로 실천해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30505 김지우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 중 하나가 '독도는 우리 땅!' 이었다. 하지만 무작정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만 머리에 있었지 독도가 어떤 곳이고 왜 그렇게 작은 섬이 큰 화제를 불러왔는지는 전혀 몰랐다. 1학년 때 학교 수행평가로 독도 홍보활동을 하면서 알게나마 공부했던 기억도 희미해질 즈음, 이번 '독도지킴이 대회'라는 기회를 빌려 내가 독도와 한 발짝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삼국 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으며 그곳이 터전이었던 희귀생물 강치가 일제의 무단 포획으로 멸종되는 수난을 겪은 독도. 그 독도를 위해 숫자에 약한 내가 대여섯 번씩 샘을 해 가며 배지를 판매해 그 수익을 계산하고, 힘들게 그려 내고 주문하고 홍보하여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기부했다. 또 집에서 결코 가깝지 않은 광화문에서 발품을 팔며 생판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얻은 수많은 서명과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이번 독도지킴이대회를 통해 얻은 것은 독도에 대한 단순한 지식뿐만이 아니다. 한 장 남짓 계획서에 빼곡히 적혀 있던 계획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추진력, 배지를 디자인할 때 어떤 것이 더 인기가 있을까 하면서 그랬던 진지함, 독도 필통 봉사를 하면서 생긴 인내심과 근육통, 광화문에서 내외국민 모두에게 말을 걸고 설명하는 용기와 13,000여 보를 걸어 다니며 생긴 고단함,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들과 맺어진 소중한 인연. 이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얻게 된 값진 보물이며 당분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2주간의 인상 깊은 체험을 할 기회를 준 것에 매우 감사한다.